

**비전, 그 비교할 수 없는 힘**  
**THE INCOMPARABLE POWER OF VISION****By Robert J. Tamasy**

처음으로 조수석과 뒷좌석에 아무도 없이 혼자 운전을 했던 경험을 잊지 못한다. 당시 나는 집에서 4km 정도 떨어진 마트에서 야간 창고담당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부모님은 우리집 차 중 하나를 나 홀로 운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고등학교시절 내내 아버지께 운전연수를 받았고, 지난여름에는 텍사스에 계신 삼촌에게 6 주간의 제대로 된 연수도 받았다. 그 때문에 나는 스스로 꽤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했고, 직장까지 가는 길도 다행히 별탈이 없었다. 그런데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상황이 달랐다.

밤 10 시쯤 근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을 기록한 뒤 마트에서 나와 차 쪽으로 걸어갔다. 안개가 너무 짙게 낀 나머지 3m 앞도 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속으로 '한번 해보지 뭐' 라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자주 다니던 길이었기에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어도 머리 속으로 가야할 길을 그릴 수 있었다. 그 상황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은 나에게로 다시 반사될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일은 핸드폰이라는 개념이 없을 당시에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조언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어머니는 불안에 떨고 계셨고, 아버지는 나를 구하러 나설 작정이셨다. 감사하게도 차에 흠집 하나 없이 나는 무사히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비록 그 전보다 한 시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렸지만 말이다.

My first experience of driving an automobile by myself, without someone in the passenger seat beside me, was one I will never forget. I was working on the evening shift as a stock clerk at a grocery store about four miles from our house, and my parents had agreed for me to drive one of the family cars solo.

I had received excellent driver training, through my high school from my father and an uncle in Texas with whom I had spent about six weeks the preceding summer. So I felt well-prepared, and my drive to the grocery store was uneventful. The drive back home, however, was a different story.

About 10 p.m., I clocked out for the evening and emerged from the store to walk to my car. An extremely dense fog had settled in and I could not see more than 10 feet ahead of me. "Well," I thought to myself, "let's see how this works out." Fortunately, I had traveled the route to and from the grocery store many times, both as driver and passenger, so I could almost visualize the path I would follow, even though the fog obscured most of the way. The headlight beams seemed to bounce back toward me, which did not help the situation.

This was in the days before anyone had even conceived of cell phones, so I could not check in with my parents to advise them of my progress. My mother was a nervous wreck, and my father had decided to become a one-man search party for me, if needed. Thankfully, I arrived home intact, without a scratch on the car, although the short drive took nearly an hour longer than it ever had before.

이 스토리를 공유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일터 또는 일상 속에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된다.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이 길이 맞나?’

‘이 안개 속에 예상치 못한 위험이나 장애물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이 모든 것은 비전이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면, 수많은 성공 기업가와 혁신가 및 리더들은 동일한 한가지 핵심 요소를 갖고 있었기에 그토록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무엇을 하고 싶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비전이 있었다.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짙은 ‘안개’가 눈 앞을 가릴 때에도 그들은 그 비전에 매달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할 때에도 팀의 모든 구성원이 현재뿐만 아닌 미래를 위한 공통된 비전을 공유할 때 그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은 아마도 수 세기 전, 한 벽돌공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그와 함께 일하던 동료 중 일부는, “시멘트를 섞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고, 또 어떤 이들은 “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벽돌공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저는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전이다!

성경에서도 비전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떠한 번역본에서는 잠언 29 장 18 절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잠 29:18)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잠 29:18)

효과적인 리더는 기업에 속한 팀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왜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가?’, ‘그 곳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도착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와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과연 그저 벽을 쌓아 올리고 있는가? 아니면 성당을 짓고 있는가?

I share this story because sometimes life is like this. We encounter a crisis, whether in the workplace or in our personal lives, and we cannot see more than an arm's length ahead. “Where should I go? Is the path clear? Are there any unexpected obstacles lying hidden in the ‘fog,’ threatening to bring me harm?”

It all comes down to vision – or the lack of it. In a business context, many successful entrepreneurs, innovators and leaders have experienced great accomplishments in part because of one key factor: They had vision for what they wanted to do and how they could get there. And they clung to that vision, even when the way seemed obscured or “fogged over.”

Similarly, a business team typically thrives when everyone shares a common vision – not only for the present, but also for the future. You might be familiar with the story of a brick mason centuries ago who was asked what he was doing. While some of his coworkers had commented things like, “mixing cement,” or “raising up a wall,” this mason’s response was classic: “I am building a cathedral.” That is vision!

The Bible speaks a lot about vision. One particular translation of Proverbs 29:18 says,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Another translation expresses it, “*Where there is no [prophetic] revelat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An effective leader is one who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casting vision for the corporate team, being able to answer questions such as, “Where are we going?” “Why are we going there?” “How are we going to get there?” “What will we be doing when we arrive?” Are they just building a wall – or a cathedral?

##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나 심한 폭풍우 속에서 여행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는 당신에게 어떠한 경험이었습니다가?

Have you ever had an experience in attempting to travel in dense fog, or a severe storm, when the way ahead was nearly impossible to see? What was that like for you?

2. 비즈니스와 전문인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면서 리더로서 또는 직원으로서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몰랐던 때가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어떠한 경험이었습니다가?

What about in a business or professional context? Have there been times in your working career when, whether as a leader or an employee, you lacked vision for where you were headed and why you were heading that way? If so, what was that experience like for you?

3. 직장 내에서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것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비전을 가장 명확하게 전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요?

How would you describe or define the value and importance of vision in a workplace context? How can vision best be communicated and put into action?

4. 비전은 영적 성장과 그 과정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비전이 당신이 하는 일의 접근 방식 또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Vision also is an important part of growth and progress in a spiritual sense. How can a Christ-centered vision for your work make a difference in how you approach what you do, or for how you interact with others over the course of a workday?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사무엘상 3:1; 예레미야애가 2:9; 다니엘 10:2-12; 마태복음 28:19-20; 고린도전서 3:9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about principles it presents,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 (삼상 3: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 (애 2:9)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목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 (단 10:2-12) 2 그 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3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4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히데켈이라 하는 큰 강 가에 있었는데 5 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6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7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8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9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10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어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 (마 28:19-20)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고전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 북미주 KCBMC [www.kcbmc.net](http://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 [www.cbmc.or.kr](http://www.cbmc.or.kr)